

함께 나아가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공연 리뷰 - ACC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ACC 올해 첫 '퍼니' 작품...평단·관객들에 꾸준한 사랑
수많은 경계성 인격장애 '키키'들에 '희망 메시지' 전해

“인정한다, 키키. 너의 고통을, 너의 병을 인정한다.”

벼랑 끝에 선 듯한 삶,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키키'가 관객 앞에 섰다.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주인공 키키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직장에서 일주일을 재견디지 못하고, 힘든 일을 마주치면 도망쳐버리는 구제불능의 그가 자신의 병을 깨닫고, 인정하고, 맞닥뜨리는 과정에 대해서.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가 지난 11~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작품은 '공연제작소 작작'이 제작했으며, 지난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신작'에 선정돼 초연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첫 공연이 광주에서 열리면서 '뮤덕(뮤지컬 덕후)'들의 이목을 끌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예요.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길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공연의 서두는 관객들을 키키의 토크콘서트로 초대한다. 노란색과 분

홍색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5명의 '호스트'들과 달리 체크남방에 청바지, 스니커즈로 평범한 차림새의 키키는 마치 가까운 친구 혹은 나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

과도한 음주와 난폭운전, 반복되는 자해와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키키는 결국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는다. “정서적 피부가 벗겨진 것과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도 화염방사기로 불을 쏘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죠.” 그래도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키키는 ‘변증법적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도 키키의 내면에는 언제나 ‘화염방사기’가 어른거린다. 겨우 취업한 직장에서는 실수를 연발하고, 상사의 평범한 한마디가 어마무시한 육설로 들린다. 자신을 괴롭게 하던 애인과 드디어 헤어지고도 다시 붙잡고, 자해를 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내 안의 멋진 녀석 살아있었구나”하며 신나하다가도 “나이만 처먹고 미성숙한 인간”하고 자학하기도 한다.

극은 일반적인 기승전결을 따르지 않는다. 여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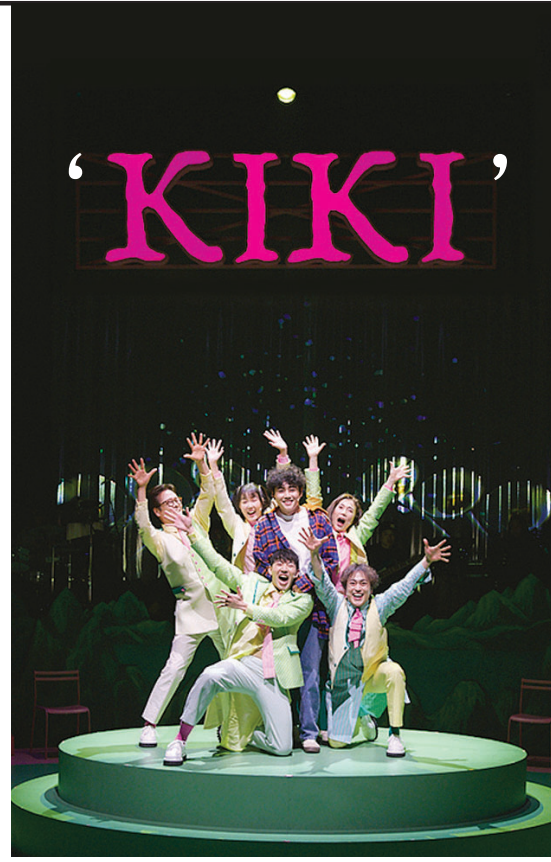
뮤지컬과 같은 화려한 세트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넘버(노래)도 없다. 변증법적 치료에 맞춰 ‘시작-안전-트라우마 마주하기-아군과의 화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고통을 견디는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의 내면을 비출 뿐이다.

그러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다. 5명의 호스트들은 키키를 도와 의사, 전 애인, 엄마, 직장 동료, 심지어 고양이와 계산대 등을 연기한다. 능청스럽게 농담을 던지고, 특정 역할을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는 모습은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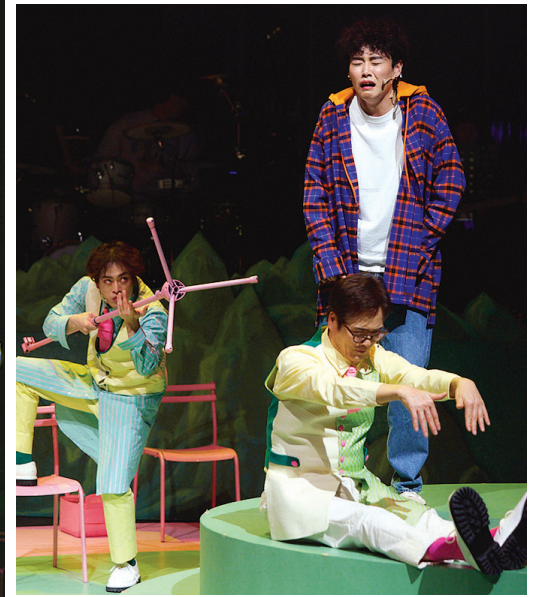
혼란스러운 키키의 내면을 따라 진행되는 다채로운 넘버도 극을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간다. 키키가 패닉에 빠질 때는 하드록이, 병을 인정하지 않는 엄마와 대립할 때는 랩 배틀이 펼쳐진다. 키키가 “구세주가 필요해”라고 호소할 때는 가스펠도 등장한다. 땡- 하고 울리는 ‘상잉블(명상에 쓰이는 주발)’ 소리는 폭발해버린 키키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환한다.

“살고 싶은 거 아니예요?” 상담사 애단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키키는 자해충동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법을 하나씩 배워간다.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열음을 손에 쥐어 안전한 고통으로 대신하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발버둥치던 키키를 위로한 것은 결국 주위로부터 자신의 고통을, 병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자신의 가장 큰 아군인 엄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12일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가 펼쳐졌다. <ACC 제공>



마, 그리고 스스로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나서야 행복을, 미래를 그리기 시작한다.

극을 마치며 키키는 수많은 '키키들'에게 말한다. “병은 완치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쑥불쑥 등장하는 화염방사기와 싸우고 있지만, 이제 더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아니, 계속해서 연습 중이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터벅터벅 느린 걸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값으려거든 이 사회에 값아라” 다큐영화 ‘어른 김장하’ 재개봉

17일 광주독립영화관

21일 관객과의대화도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값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값아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기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그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원한 김장하(81) 선생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가 오는 17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다시 관객을 만난다.

지난 2023년 11월 개봉한 이 영화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TOP10 시리즈’ 7위(13일 기준)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광주독립영화관 상영 역시 시민들의 재개봉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21일 오후 7시에는 김 선생을 취재해온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와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영화는 경남 진주에서 6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사회의 가장 여린 곳에 손을 내밀어온 김장하 선생의 삶을 되짚는다. 낡은 양복을 몇 해째 입으면서도, 수많은 고학생에게 장학금을 베풀고 학교를 세웠으며, 지역 언론과 여성 인권 운동, 환경 보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어른’으로 살아온 김장하 선생.

영화는 일종의 ‘미담 추적전’이기도 하다.

“나를 우상화하지 말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김 선생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좋은 분을 알아야한다”며 쫓아가는 김주완 기자.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김 선생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사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하는 질문을 안긴다.

한재섭 광주독립영화관 관장은 “우리 사회에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며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강렬한 색채, 섬세한 점들의 조화

박제인 초대전, 30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 갤러리

예술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림은 보는 이에게 시각적인 율림과 메시지를 통해 안정감을 준다. 특히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무언의 힘이 있다. 자연이 건네는 위로와 평안은 백 마디 말과 현란한 수사보다 깊고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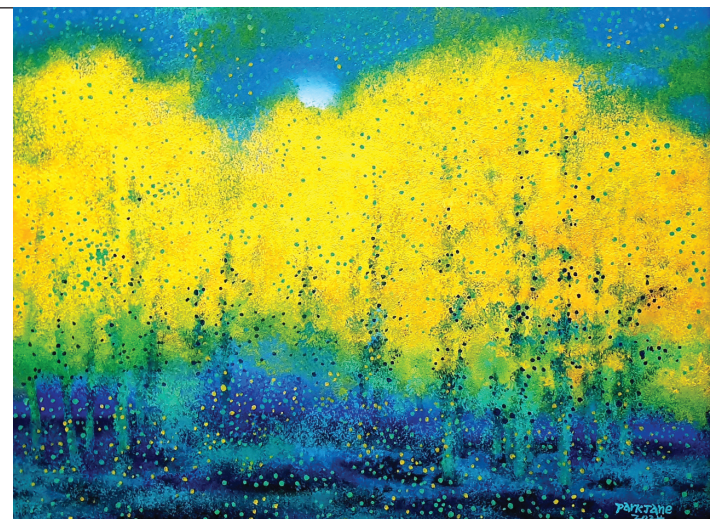
박제인 작가는 자연에 감정을 투영해 치유의 메시지를 구현한다. 자연을 화폭으로 끌어들이자 신만의 감성을 입힌 작품은 특유의 따스함과 은은함을 발한다.

전남대치과병원 (원장 황윤찬) 아트스페이스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인 박제인 초대전, 색채의 강렬한 대비, 섬세하면서도 환상적인 점들이 모여 이뤄낸 그림은 보는 이에게 여유와 평안을 준다.

‘Nostalgia’로 명명된 작품은 향수를 환기한다. 구체적인 향수의 대상을 환기하는 것이 아닌 보는 행위 자체로 아련함과 그리움을 떠올리게 한다. 점묘법과 추상 표현주의 특징이 결합된 그림은 동화의 나라로 초대된 느낌을 갖게 한다.

파랑, 노랑, 초록이 어우러

진 화폭은 생명력이 넘치는 무성한 숲을 이미지화했지만 사실은 작가 내면에 드리워진 감성을 풀어낸 것이다. 관람객들은 저마다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 작가의 내면에 깃든 감성의 힘이 어우러진 우주를 발견할 수 있다.



‘Nostalgia’

한편 황윤찬 원장은 “아트스페이스갤러리는 전시라는 일차적 기능을 넘어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와 치유가 공존하는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올해 첫 ‘GB 작가탐방’ 박치호 작가 탐구

오늘 예술공간 집

여수 출신 박치호 작가는 그동안 ‘바다’와 바다를 타점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삶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화폭에 담아왔다. 지난 2022년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BIG MAN: 다시 일어서는 몸’전은 몸의 형상과 의미를 각인시킨 계기였다. 몸은 한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역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화두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작가탐방(GB 작가탐방) 첫 프로그램으로 박치호 작가 작업 세계를 탐구한다. 14일 오후 4시 예술공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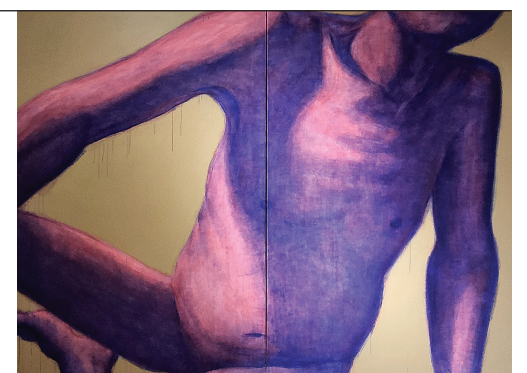
이번 GB 작가탐방에서는 몸을 모티브로 인간의 서사와 내면을 조망해 온 박 작가의 작품과 작

업세계의 특징에 대해 듣는 자리다. 진행은 비영리 큐레토리얼 프락티머리 프랙티스의 김성우 큐레이터. 김 큐레이터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한 바 있다.

올해 GB 작가탐방은 올해 11월까지 매달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이번 GB 작가탐방에 앞서 지난 4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10명 작가(김설아, 김신운, 노유승, 박치호, 신호운, 윤준영, 이인성, 임수범, 정명숙, 천영록)와 4명 협력공간(뽕뽕브릿지, 예술공간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스페이스 DDF)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상갑 문화경제부시



‘몸’

장은 “올해도 작가들의 작품세계 등을 직접 작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GB 작가탐방이 11월까지 진행된다”며 “이번 박치호 작가 GB에서는 몸을 매개로 축적된 기억과 흔적의 의미를 깊이있게 사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